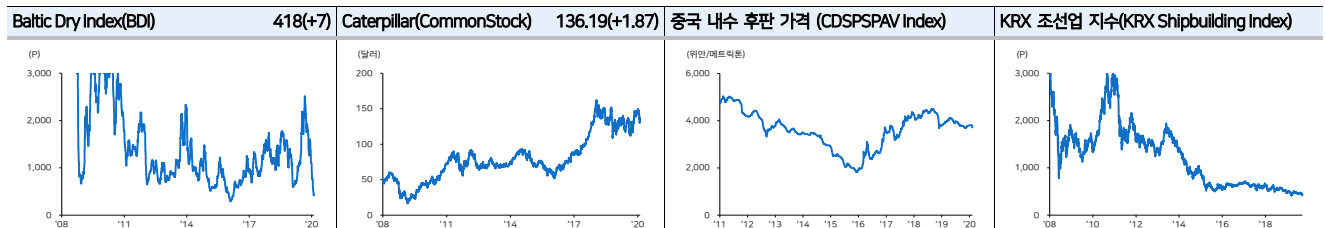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9	20E	19	20E	19	20E
현대중공업지주	4,926.7	19.5	302,500	-0.5	-6.3	-7.9	-10.5	13.6	9.2	0.6	0.6	4.6	6.7
한국조선해양	8,528.2	17.9	120,500	0.0	-8.0	1.3	-4.7	39.7	32.8	0.7	0.7	1.9	2.1
삼성중공업	4,258.8	18.5	6,760	0.4	-9.3	-5.1	-7.0	-4.0	469.2	0.7	0.7	-16.0	0.3
대우조선해양	2,739.1	12.3	25,550	1.6	-6.2	-12.3	-8.3	24.7	30.8	0.7	0.7	3.5	2.5
현대미포조선	1,701.5	12.8	42,600	0.7	-9.9	0.9	-7.5	19.8	17.9	0.7	0.7	3.7	4.0
한진중공업	402.2	20.7	4,830	8.5	3.0	0.6	-3.1	N/A	N/A	N/A	N/A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060.7	19.8	31,400	0.3	-4.1	-17.6	-7.8	14.0	16.3	2.5	2.3	19.2	14.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37.6	22.2	33,700	-0.7	-1.5	-10.6	-3.9	14.3	13.4	0.7	0.7	5.1	5.2
LIG넥스원	647.9	4.6	29,450	-0.2	-4.8	-8.1	-6.8	N/A	N/A	N/A	N/A	N/A	N/A
현대로템	1,326.0	3.6	15,600	-1.6	0.0	-3.7	0.0	-7.2	262.6	1.5	1.6	-19.2	0.4
현대엘리베이터	1,691.8	21.8	62,200	-1.4	-6.5	-17.4	-8.9	34.2	22.1	1.8	1.7	5.0	7.7
두산중공업	1,128.0	8.8	5,580	0.4	1.6	-3.6	-2.4	-15.6	10.6	0.4	0.3	-3.4	4.7
두산밥캣	3,052.6	26.3	30,450	0.7	-7.7	-5.3	-11.4	10.1	9.0	0.8	0.7	7.8	8.3
두산인프라코어	1,045.0	15.9	5,020	1.2	-2.5	-12.1	-9.5	3.9	3.7	0.5	0.4	12.6	11.8
현대건설기계	491.5	10.8	24,950	1.2	-14.1	-17.0	-16.6	7.3	6.2	0.4	0.4	5.1	6.5
현대일렉트릭	405.5	5.5	11,250	-0.9	-11.4	21.6	-2.6	-2.3	217.5	0.4	0.5	-14.2	1.0
하이룩코리아	223.3	46.8	16,400	1.9	-6.3	-8.9	-14.6	N/A	N/A	N/A	N/A	4.5	4.8
성광벤드	273.1	20.1	9,550	1.7	-7.3	-5.4	-7.7	36.8	22.5	0.6	0.6	2.4	2.9
태광	280.9	15.5	10,600	2.9	3.4	8.0	3.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84.7	5.3	10,550	-0.9	-5.8	7.7	0.0	17.8	8.0	3.0	2.2	19.7	32.9
한국카본	352.6	11.6	8,020	-1.0	-5.2	3.0	2.4	29.1	13.5	1.1	1.1	4.3	8.3
태웅	155.9	5.0	7,790	0.5	-3.8	-27.2	-12.4	N/A	N/A	N/A	N/A	N/A	N/A
HSD엔진	141.0	2.7	4,280	-2.5	-9.2	-1.2	-4.3	-5.8	29.2	0.7	0.7	-11.1	2.3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 추천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larksons: Shipyard sector least likely to bounce back from coronavirus

Clarksons에 따르면 중국 조선업계가 우한 폐렴이슈로부터 단기간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1)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2) 중국 내 여행 제한 및 출퇴근 연휴 확대 등으로 인한 생산 문제 등으로 인해 2020년 전망은 불확실하며 20년 인도 물량의 지연 가능성이 보도됨. (TradeWinds)

Bernhard Schulte agrees \$1.75m fine in US pollution case

Bernhard Schulte Shipmanagement가 하와이 175만달러의 벌금에 동의했다고 보도됨. 이번 사례는 45,650DWT급 PC선이 지난해 5~7월 사이에 하와이에서 빌지(선박의 밑바닥에 있는 유성 혼합물)를 배출한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호주산 LNG가 최대 피해 입어

중국이 수입하는 LNG의 절반(47%)이 호주산이며 이번 중국의 불가항력선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도됨.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은 LNG 장기 공급업체들에게 2월 중 중국으로 들어오는 LNG의 절반에 불가항력 수락을 요청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대우조선, 삼성중 중국 블록공장 재가동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중국 현지 블록(조선 반제품) 공장이 지난 10일 조업 재개 허락을 받고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됨. 대우조선해양은 연산 20만톤 규모의 블록공장을 중국 산둥성 엔타이시에서 운영중이며, 삼성중공업은 저장성 닝보와 산둥성 웨이하이에 20만톤과 50만톤의 공장을 운영중으로 알려짐. (선박뉴스)

Coronavirus hits Chinese offshore yards as TechnipFMC delays contract award

영국의 TechnipFMC가 중국 해양업체와의 주요 계약을 연기했다고 보도됨. 해당 계약은 러시아 Arctic LNG 2 프로젝트의 모듈관련계약이라고 보도됨. 계약 연기의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여행 제한 및 연휴 확대 노력이 중국 내 야드의 생산성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Upstream)

K Line, 중국에 LNG선 2척 발주

일본 선사 K Line이 79,960CBM급 LNG선 2척을 중국 Hudong-Zhonghua에 발주했다고 보도됨. K Line의 이번 발주는 말레이시아 에너지 기업 Petronas와 체결한 12년+옵션 기간의 장기 운송 계약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도됨. (선박뉴스)